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s and Childrearing attitude

박 화 윤*

Park, Wha Yon

최 재 숙**

Choi, Jae Suk

마 지 순***

Ma, Ji Sun

Abstract

In this study, 354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parental roles, and their parents' and their own attitudes about childrearing. Data were analyzed by SPSS. Findings were that most college students perceived instrumental reasons for becoming a parent, and the parental role as consultant and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Most college students thought that mothers and fathers have equal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that information on childrearing is to be found among friends and other adults, and that pre-parenthood education is important. They perceived their own parents to be satisfied with their parental roles, and they perceived both their parents and themselves to hold favorable attitudes about childrearing. Students' attitudes about childrearing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ir perceptions about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Key Words : 부모역할(parent role), 자녀양육(childrearing), 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7월 31일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pwhayun@wonkwang.ac.kr.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I. 서론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의 직업 참여 증가, 늦은 결혼, 이혼율의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등 가족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는 개인주의 가치로 대체되고 있고, 가족 체계 내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재 개념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유안진, 신양재, 1993).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이는 가정생활의 내용과 기능은 물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유안진, 김연진, 1992). 최근의 연구(Clavert & Stanton, 1992)를 보면 부모가 되기 직전의 성년 89%가 부모가 되고자 희망하거나 부모됨에 대하여 높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는 예비부모들에게 아동발달이나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부모로서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므로 자녀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1)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지식이나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은 미래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현재 경험이 미래의 자녀에게 효율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Hugent, 1991).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예비부모의 교육을 담당(제경숙, 1989)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가 되는 동기는 부모로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고 이는 개인의 생애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Rabin(1965)은 부모가 되는 동기를 숙명적, 자기도취적, 이타적, 도구적 동기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부모됨의 동기를 보면 신혼 또는 첫째 임신 부부는 부부간의 유대감 강화라는 도구적 동기(김지신, 정승원, 최미경, 1997)가 많았다. 그러나 미혼인 대학생은 자녀양육 자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이타주의적 동기(정미라 외, 1995; 김지은, 2000)가 많았으며 가계계승 및 노후의 의존과 같은 숙명적 동기는 낮게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전통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가문의 존속, 여학생은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더 가치를 두었다(김지은, 2000; 유안진, 신양재, 1993; 정미라 외, 1995).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자녀를 낳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표현된다. 부모역할은 아버지의 도구적 기능과 어머니의 표현적 기능으로 구분되었으나(Parsons & Bales, 1955) 최근에는 가족 크기가 점점 축소되고 여성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는 도구적 역할을, 아버지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등 부모 역할 수행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즉, 부부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맡아야하는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두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이은화, 김영옥, 1999).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져야 하고 아버지의 역할로는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도구적인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로는 자녀의 의논 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표현적 역할로 인식하면서도, 부모가 각자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었다(김지은, 2000; 나은경, 1992).

부모역할의 성역할 개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은 전통적인 성별 구분의 경향을 띄고 있으며, 통제 훈육이나 성장자극 역할을 모두 중요시하였다(유안진, 신양재, 1993). 즉, 아버지 역할 개념에 비해 어머니 역할개념은 보다 성 구별적 경향을 보이고, 통제·훈육 역할은 어머니에게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녀를 원하는 동기가 애정적, 유대적 의미로 나타나는 경향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자녀의 일차적인 양육의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정미라 외, 1995).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성인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이다(유희정, 1995). 과거의 자녀양육은 사회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변화(Hoffman & Maris, 1979)로 인하여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출산 및 양육의 책임자,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적절한 훈육자, 교육자, 동일시 모델의 역할제공자, 상담자 및 친구의 역할이다(이숙재, 1983).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 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따라 다르며 이는 문화적, 환경적, 근원가족의 영향뿐 아니라 부모기에 대한 태도 및 양육목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김진영 외, 2001; Bronfenbrenner, 1979; Couchenour & Chrisman, 2000). 특히, 근원가족은 그들이 부모로써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느냐에 따라 자녀의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신의 자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Couchenour & Chrisman, 2000)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들의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만족할 경우 부모 역할 수행에서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방하여 수행하지만 불만족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이나 신체적 접촉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Bigner, 1994).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제공하는 가정의 분위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모든 양육유형에 대한 비형식적 학습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연구는 있으나 대학생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갖는 자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신의 자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예비부모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부모역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자신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354명이다. 자료수집은 질문지에 의해 I시 W대학교의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둘째 주에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기재사항이 미비한 질문지 25부를 제외한 354부(93%)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이며 평균 연령은 만 20세이며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 (%)

배경요인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학생	194(54.8)	354(100)
	여학생	160(45.2)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김지신, 1997; 김지은, 1999; 나은경, 1992; 박정숙, 1984; 이숙재, 1983)를 기초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재구성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총 51문항(일반적 배경요인 문항 제외)으로써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3문항(부모됨의 동기-1 부모역할-2), 자녀양육

에 대한 인식 3문항(자녀양육책임-1, 자녀양육의 정보원-1, 자녀양육을 위한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1), 자신에 대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만족 1문항,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신의 미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각 22문항(애정적 양육태도-6, 거부적 양육태도-4, 의존적 양육태도-6, 통제적 양육태도-6)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문항은 복수응답(2개 선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문항은 강제 선택형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바람직한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문장 서술의 적절성을 파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86 이었다.

3. 자료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고,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인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하였다.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역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1) 부모됨의 동기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인식은(<표 2>) 도구적 동기(65.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타주의적 동기(21.8%), 자기도취적 동

기(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명적 동기(3.7%)는 가장 낮았다. 이를 성별로 알아본 결과 이타주의적 및 자기도취적 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구적 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대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됨의 동기를 도구적 동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

부모됨의 동기	남학생	여학생	전 체
숙명적 동기	14(3.6)	12(3.8)	26(3.7)
이타주의적 동기	92(23.7)	62(19.4)	154(21.8)
자기도취적 동기	36(9.3)	26(8.1)	62(8.8)
도구적 동기	246(63.4)	220(68.8)	466(65.8)
전체	388(100.0)	320(100.0)	708(100.0)
$\chi^2(df=3)$	2.554		

2) 부모의 역할

대학생들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표 3〉)은 자녀의 의논 상대자(28.9%), 경제적 지원(23.4%)

〈표 3〉 부모역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

부모의 역할	남학생	여학생	전체
경제적 지원의 역할	175(22.6)	157(24.5)	332(23.4)
자녀 학습 지도의 역할	96(12.4)	58(9.1)	154(10.9)
사회의 가치관 전달 역할	62(8.0)	39(6.1)	101(7.1)
훈육적 역할	61(7.9)	33(5.2)	94(6.6)
의논상대자의 역할	220(28.4)	189(29.5)	409(28.9)
건강 및 영양 관리의 역할	67(8.6)	57(8.9)	124(8.8)
자녀보호의 역할	95(12.2)	107(16.7)	202(14.3)
전 체	776(100.0)	640(100.0)	1416(100.0)
$\chi^2(df=6)$	14.875*		

* $p < .05$

%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자녀보호(14.3%), 자녀의 학습지도(10.9%)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훈육 및 사회의 가치관 전달(6.6%)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알아보면 건강 및 영양관리와 의논상대자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자녀보호, 경제적 지원은 여학생이, 자녀학습지도, 사회의 가치전달, 훈육은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 < .05$). 특히, 자녀학습지도와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학생	여학생	소계	남학생	여학생	소계
경제적 지원의 역할	137(35.3)	131(40.9)	268(37.9)	38(9.8)	26(8.1)	64(9.0)
자녀 학습 지도의 역할	29(7.5)	13(4.1)	42(5.9)	67(17.3)	45(14.1)	112(15.8)
사회의 가치관 전달 역할	33(8.5)	25(7.8)	58(8.2)	29(7.5)	14(4.4)	43(6.1)
훈육적 역할	32(8.2)	25(7.8)	57(8.1)	29(7.5)	8(2.5)	37(5.2)
의논상대자의 역할	94(24.2)	66(20.6)	160(22.6)	126(32.5)	123(38.4)	249(35.2)
건강 및 영양 관리의 역할	8(2.1)	5(1.6)	13(1.8)	59(15.2)	52(16.3)	111(15.7)
자녀보호의 역할	55(14.2)	55(17.2)	110(15.5)	40(10.3)	52(16.3)	92(13.0)
전 체	388(100.0)	320(100.0)	708(100.0)	388(100.0)	320(100.0)	708(100.0)
$\chi^2(df=6)$	7.321			19.414**		

** $p < .01$

자녀보호의 역할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표 4>)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버지 역할은 경제적 지원(37.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논상대자(22.6%), 자녀보호(15.5%)가 높았다. 그러나 건강 및 영양관리(1.8%), 자녀학습지도(5.9%)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경제적 지원과 자녀보호는 여학생이, 의논상대자, 자녀학습지도는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역할은 의논상대자(35.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녀의 학습지도(15.8%), 건강 및 영양관리(15.7%), 자기보호(13.0%) 순으로 높았으나 사회의 가치전달(6.1%)과 훈육의 역할(5.1%)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의논상대자, 자녀보호는 여학생이, 자녀학습지도는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p < .01$).

2. 자녀양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1) 자녀양육의 책임

대학생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인식(<표 5>)은 부모가 동등하게 담당(89.0%) 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 대부분 담당하고 한 명은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9.9%)거나 어느 한 명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성별로 보면 한 부모가 대부분 담당하고 나머지 한 부모가 일부 담당해야 한다는 남학생이, 부모가 동등하게 담당해야 한다는 여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5>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자녀양육의 책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어머니가 전담해야한다	0(0.0)	0(0.0)	0(0.0)
아버지가 전담해야한다	2(1.0)	2(1.3)	4(1.1)
어머니가 대부분 담당하고 아버지가 일부 담당해야 한다	19(9.8)	6(3.8)	25(7.1)
아버지가 대부분 담당하고 어머니가 일부 담당해야 한다	6(3.1)	4(2.5)	10(2.8)
부모가 동등하게 담당해야한다	167(86.1)	148(92.5)	315(89.0)
전체	194(100.0)	160(100.0)	354(100.0)
$\chi^2(df=5)$	5.087(.166)		

2) 자녀양육의 정보원

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곤란한 점이 있을 때 이러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표 6>)은 친구나 다른 성인과의 상담(3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와의 상담(31.1%) 및 전문가와의 상담(21.2%)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문서적이거나 잡지(9.0%)를 참고한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자신의 부모님과 의논한다와 전문서적이거나 잡지를 참고한다는 여학생이, 친구나 다른 성인과의 상담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은 남

<표 6> 자녀양육 지식의 정보원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원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문서적이거나 잡지	10(5.2)	22(13.8)	32(9.0)
자신의 부모님과 의논	53(27.3)	57(35.6)	110(31.1)
친구나 다른 성인에게 상담	65(33.5)	51(31.9)	116(32.8)
전문가에게 상담	52(26.8)	23(14.4)	75(21.2)
기타	14(7.2)	7(4.4)	21(5.9)
전체	194(100.0)	160(100.0)	354(100.0)
$\chi^2(df=4)$	16.771**		

** $p < .01$

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 < .01$). 특히, 전문가와의 상담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인식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3) 자녀양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필요성

자녀양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표 7>)은 예비교육이 꼭 필요하다(51.1%)와 배우는 것은 좋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인식(46.08%)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되면 누구나 잘하게 되므로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1.7%)는 인식도 있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예비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여학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남학생(47.9%)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7> 자녀양육에 대한 예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

자녀양육에 대한 예비교육의 필요성	남학생	여학생	전체
꼭 필요하다	95(49.0)	88(55.0)	183(51.7)
배우는 것은 좋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93(47.9)	70(43.8)	163(46.0)
부모가 되면 누구나 잘하게 되므로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	6(3.1)	2(1.3)	6(1.7)
전체	194(100.0)	160(100.0)	354(100.0)
$\chi^2(df=2)$	2.941		

3.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1) 자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만족

대학생들은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하여(<표 8>) 만족(43.2%)하거나 매우 만족(57.6%)하지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스

럽다(9.0%)는 인식도 있었다. 이를 성별로 알아본 결과 남학생(62.9%)이 여학생(51.2%)보다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8> 자기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만족 (%)

자기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	남학생	여학생	전체
매우 불만족	2(1.0)	2(1.3)	4(1.1)
불만족	11(5.7)	17(10.6)	28(7.9)
보통	59(30.4)	59(36.9)	118(33.3)
만족	92(47.4)	61(38.1)	153(43.2)
매우 만족	30(15.5)	21(13.1)	51(14.4)
전체	194(100.0)	160(100.0)	354(100.0)
$\chi^2(df=4)$	5.944		

2) 자신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학생들이 인식한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표 9>)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p < .001$)가 있었다.

<표 9> 자신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구분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의존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자기 부모 양육태도	.369***			
양육태도		.451***		
태도			.517***	
통제적 양육태도				.513***

*** $p < .001$

즉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 양육

태도($r=.369$), 거부적 양육태도($r=.451$), 의존적 양육태도($r=.517$), 통제적 양육태도($r=.513$)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존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의존적, 통제적 양육태도는 다른 양육태도에 비하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부모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신의 미래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역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하여 도구적 동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이 다르지만 김지신 외(1997), 나은경(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김지신 외(1997)의 연구는 첫아이를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은 부모됨의 동기를 자녀가 있음으로서 부부간에 더욱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나은경(199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부모됨의 동기를 도구적 동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타주의 동기가 높게 나타난 김지은(2000), 정미라 외(1995)의 연구와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라는 숙명

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안진 외(199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부모됨의 동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들은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의논상대자와 경제적 지원의 역할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자녀보호 및 경제적 지원의 역할에서는 여학생이, 자녀학습지도, 훈육의 역할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모두가 아버지를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로, 어머니 역할은 자녀의 의논상대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학생들이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의 역할 같은 도구적 역할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의논상대자와 친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표현적 역할로 인식(유안진 외, 1999; Lamb, 1986; Rapoport, Rapoport, Strelitz, & Kew, 1977)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부모역할 개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의논상대자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던 선행연구(김지

은, 1999; 이순희, 1986; Duvall, 197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모델(Fein, 1986)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자녀양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자녀양육의 책임자,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자녀 양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은 부모가 동등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책임을 담당해야한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 역할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Gestwicki, 2000; Hamner & Turner, 1996)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이은화 외, 1999)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 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등하게 보았던 선행연구(김지은, 1999; 나은경, 199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렇지만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대부분 담당하고 아버지가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하였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자녀양육을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로서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유안진 외(1993)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로서 부모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Parke, 1981)이다. 특히 유교 사상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는 정의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게 인식(Berger, 1995)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녀양육의 정보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친구나 다른 성인에게 상담하거나 본인의 부모님과 의논하여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 결과는 남녀 모두 부모님과 의논하겠다는 나은경(199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친구와 다른 성인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겠다고 한 반면 여학생은 부모님과 의논을 하겠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의 성별 차이는 남편은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원과 상담하고 부인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전문서적을 참고하겠다는 김지신 외(199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이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셋째, 자녀양육을 위한 예비교육은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결과는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행연구(김지신 외, 1997; 김지은, 1999; 나은경, 1992; 이은화 외, 1999; Gestwicki, 2000)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배우면 좋지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부모가 되면 누구나 잘하게 되므로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역할이 여러 가지 성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은화, 김영옥, 1999; Gestwicki, 2000)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면 부모역할 기술은 자연적으로 생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견해(Berger, 1996)를 반영한다.

3.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 자신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학생들은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부모양육태도에 찬성한다는 나은경(199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함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둘째, 대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 인식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거부적, 의존적, 통제적으로 인식한 대학생은 자신의 자녀 양육태도에서도 애정적, 거부적, 의존적, 통제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신의 자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Couchenour와 Chrisman(2000)의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양육 신념에 미시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부지역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녀양육 신념이 부모에

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더 넓은 사회체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박성연, 1996)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올바른 부모 양육태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시에 소재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김지원, 2000; 유안진, 1993; 정미라 외, 1995)의 결과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표집하여 어떠한 변인에 다른 영향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부모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를 습득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역할 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역할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에 기초하여 개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자신에 대한 양육태도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적이거나 의존적인 양육태도를 받았을 때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받았을 때 보다 자녀의 양육태도에 더욱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지신 · 정승원 · 최미경(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5(6), 41-53.
- 김지은(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충북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32(3), 47-58.
- 김진영 · 김정원 · 전선옥(2001). 유아, 부모, 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 창지사.
- 나은경(1992).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숙(1984).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 김연진(1992). 부모교육. 서울 : 동문사.
- 유안진 ·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3.
- 이병래(1991). 결혼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1983). 여대생의 자녀관, 자녀양육 지식 및 부모역할 이해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 연구(숙명여자 대학교), 6, 39-57.
- 이은화 · 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 동문사.
- 정미라 · 이희선 · 배소연(1995).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 제경숙(1989).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경(1990). 부모교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갤럽 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 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Berger, E. H. (1995).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 Families and school working together*. NJ : A simmion & schuster company. Prentice-Hall Inc.
- Bigner, J. J. (1994). *Parents -child relationship : An introduction to parenting*(4th ed.). N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ronfenbrenner, U. (1979). Who need parent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4, 767-787.
- Clavert, B., & Stanton, W. (1992). Perceptions of parenthood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15 year-old girls and boys. *Adolscence*, 27(106), 315-329.
- Couchenour, D., & Chrisman, K. (2000).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together for young children*. NY : Delmar.
- Duvall, E. A.(1979).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 Fein, R. A.(1986). Research in fathering : Social policy and an emergent perspective. In A. S. Skolnick & J. H. Scolinick(eds.). *Family in transition*(5th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Gestwicki, G. (2000).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hips*(4th ed.). NY : Delmar.
- Hamner, T. J., & Turner, P. H. (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3th ed). Needham : Allyn and Bacons.
- Hoffman, L. W., & Maris, J. D.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Hugent, J. K.(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r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75-485.
- Lamb, M. E.(1986). *The Father's role*. NY : John whiley & sons.
- Parke, P. D.(1981). *Father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 Bales, R.F.(1995). *Family*. New York : Macmillan.

Rabin, A. (1965).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29, 405-411.

Rapoport, R., Rapoport, R. N., Strelitz, Z., & Kew, S.

(1977). *Fathers, Mothers and Society*. NY : A division of Random House.